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여야 주도권 잡기 전운 고조

문 정부 심판론 vs 윤 정부 실정론 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등 쟁점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힘겨루기 28~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목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버리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략에 주력할 계획인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요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의혹 등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갑골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버리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정치분야(19일)에 김회재 의원, 교육·사회분야(22일)에 이병훈, 김원이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혐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또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

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동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14~15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민생이 실종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 정쟁에 이제 넘달머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여야가 알아야 한다"며 "특히, 경제 위기로 민생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만큼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영빈관 신축 계획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

878억원 예산 책정했다 포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약 878억 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이 야당과 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비우호적인 여론이 감지되자, 이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대

통령실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이후 대통령실 자신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력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당초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먼저 497억46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2년간 사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고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태풍,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에 앞서 제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한반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하천변 저지대 도로나 주차장 등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등 어떠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관리 당국을 향해 대피명령·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업체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남마돌이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지자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업무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李,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법 위반 의혹 등 당에 유해 행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중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 쓰셨죠"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남원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1부. 화홍산수, 송화분분, 풍죽 ('22. 09. 02. ~ 11. 13.)
2부. 바보예수, 상선약수 ('22. 11. 23. ~ '23. 02. 26.)
3부. 숲에서 ('23. 3. 21. ~ 6. 25.)
4부. 길 위에서 "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 ('23. 07. 04. ~ 10. 29.)

N K A M

화홍산수

꽃이 활짝

송화분분

씨를 품고

풍죽

바람에 날리면

2022. 09. 02. FRI
— 11. 13. SUN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